

책으로 세상을 읽다

침묵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당신에게 「침묵주의보」

글. 이하민 북칼럼니스트 / 前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문상상프로젝트 기자



「침묵주의보」 정진영 지음 / 출처: YES24

“침묵으로 얻은 평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소설 <침묵주의보>의 주인공이자 메이저 언론사 기자 ‘대혁’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일어난 비리에 대해 던지는 물음이다.

말 한마디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아 사회를 더 큰 위기에 빠뜨리는 경우를 종종 본다. 왜 인간은 침묵하는가? 침묵을 강요하는 이들은 우리를 이렇게 설득한다. “가만히 있으면 모두가 조용히 넘어갈 수 있다”, “아무도 피해 보지 않을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침묵하지 않았을 때 나를 포함한 내 가족, 친구, 동료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는 소수의 영웅들은 그런 두려움을 감수하고 행동에 나서는 것일 거다.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과연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소설 <침묵주의보>는 자신의 생계와 사회 정의 사이에서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저자인 정진영은 언론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기자다. 그는 오랫동안 언론사에서 일하면서 겪은 부조리, 그리고 이를 스스로 시정하지 못하는 언론 시장의 한계를 통감하며 소설 속에 담았다. 언론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 소설 속 저자의 문제의식은 우리 사



우리를 침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 출처: Pixabay

회 어느 조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저자는 주인공 대혁의 모습을 통해 ‘침묵’의 문제를 극복하며 성장하는 평범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침묵주의보는> 그렇게 탄생했다.

대혁은 한국의 메이저 언론사 중 하나인 ‘매일한국’의 기자다. 그는 온라인 기사를 생산하는 ‘디지털뉴스부’에서 일한다. 디지털뉴스부는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소위 ‘낚시성’ 기사를 생산한다. 홈페이지 트래픽이 증가해야 그만큼 광고비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대혁은 이런 일에 환멸을 느끼나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비판하거나 저항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톱니바퀴 굴러가듯, 조직이라는 거대한 기계적 작동의 한 부속품으로서 자신을 맡긴다.

대혁의 톱니바퀴 같은 직장 생활은 정규직 전환형으로 선발된 6명의 인턴 기자들이 들어오면서 송두리째 바뀐다. 인턴 중 최고령(29살)에 유일한 지방사립대 출신인 ‘김수연’이 불확실한 취업을 비판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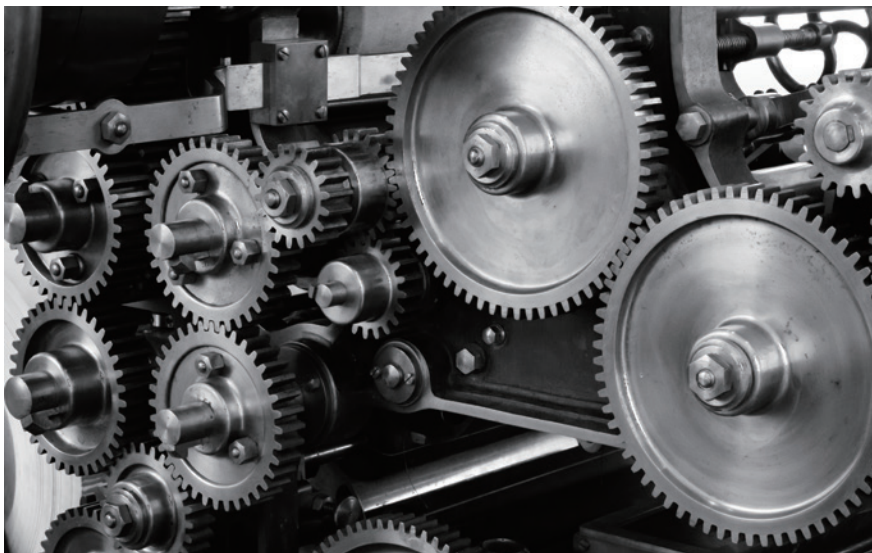
왜곡된 뉴스로 인해 피해자도 한순간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 / 출처 : Pexels

사옥에서 투신해 자살하면서부터다. 사실 수연의 자살은 단순한 취업 비판이 아니었다. 수연은 인턴 동기들과 점심을 먹던 중 건너편에 있던 성 국장이 자신의 학벌을 비하하며 정규직 배제를 암시하는 말을 듣는다. 그런데 그 순간에 대혁이 국장과 함께 있었고, 대혁은 수연이 그 말을 들은 것을 안 유일한 사람이었다.

언론사 인턴 기자가 자살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세상이 뒤집어졌다. 수연의 죽음의 이유를 밝혀달라는 유가족들의 요구와 함께 그녀와 연대하는 수많은 취준생

의 SNS 시위가 이어진다. 대혁은 수연이 자살한 이유를 어렵짐작할 수는 있었으나, 이것만으로 확실치 않다고 판단했다. 결국 경찰이나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침묵한다. 그러던 중 대혁은 지인 경찰로부터 매일 한국의 정규직 전환형 인턴 채용 과정에서 ‘여신전자’라는 기업과 유착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된다. 6명의 인턴 중 ‘김원용’이라는 인턴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여신전자 CEO의 아들이었다. 김원용은 매일 한국의 오너 이형우 대표의 조카딸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조카딸의 아버지는 이형우의 동생이자 현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이었다. 즉, 매일 한국은 여신전자와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김원용을 채용했으며, 김수연은 이를 위한 들러리였던 것이다.

대혁이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을 알게 된 오너는 대혁의 입을 막기 위해 그를 기획조정실로 편입시킨다. 기획조정실은 한마디로 세상의 온갖 ‘찌라시’들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곳이다. 그중 사회를 뒤흔들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형’ 뉴스들도 바로 이곳에서 나온다. 대혁은 상사로부터 전달받은 수연에게 불리한 증언을 외부에 흘리라는 압력을 받는다. 해당 정보



톱니바퀴같이 반복되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대혁’ / 출처 : Pexels



침묵을 강요하는 이들은 자신의 높은 권력을 이용해 상대를 짓누른다 / 출처 : Pixabay

는 어느 정도 사실이기는 했으나, 수연의 자살과는 무관한 찌라시였다. 갈등하던 대혁은 결국 그 정보를 카카오톡 찌라시방에 공개하고 만다. 이후 SNS상에서 수연은 한순간에 ‘피해자’에서 회사에 해를 끼친 ‘가해자’가 돼버렸다.

이후 양심의 가책에 시달린 대혁은 수연과 인턴 동기였던 ‘희철’이 그녀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남모르게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대혁은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 결국 자신이 아는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한다. 그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입장문과 국장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페이스북에 업로드한다. 업로드를 확인한 대혁은 그간의 모든 짐을 벗어던지듯 그 길로 회사를 떠난다.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된 대혁은 새 삶을 찾기 위해 국토종주를 시작한다.

침묵의 늪에 빠지는 이유

소설 속에서 드러난 대혁의 모습은 결코 완전무결한 정의로운 사도가 아니다. 그는 처음부터 부조리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지 않는다. 불의에 분노는 느끼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 적당히 타협하거나 몸을 사린다. 디지털뉴스부의 자극적인 기사 양산을 비판하면서도 스스로 그에 동참하는 모습, 회사의 거대한 유착관계를 알았음에도 침묵하는 모습,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거북함을 느끼나 결국 순응하는 모습 등이 이를 잘 보여준다. 어쩌면 나 자신 혹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평범한 인물이다. 저자는 이러한 인물 설정을 통해 침묵의 문제가 우리 앞에 어떻게 놓여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초반부 수연의 죽음은 뒤이어질 소설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핵심 뼈대이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표상한다. 이는 저자가 기자로서 평소에 언론계를 포함한 한국 사회에 대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학벌 지상주의, 불공정한 경쟁, 비정규직(인턴) 노동 착취, 그리고 이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정작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고 별로 공정하지 못한 언론사의 모순 등이다. 책은 3년 전인 2018년에 나왔는데, 해당 이슈들은 최근 들어 젊은 유권자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정부에 대한 청년들의 민심이 돌아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불공정’ 때문이었다. 그만큼 젊은 세대가 더는 차별과 불공정에 가만있지 않겠다는 것이다. 저자가 <침묵주의보>를 집필하면서 청년이 처한 현실을 중심 소재로 다룬 것은, 지금의 터져 나오는 청년들의 분노를 이미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대혁은 수연을 둘러싼 문제에 침묵했지만 그래도 죄책감은 느꼈다. 그러나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은 채, 오히려 침묵을 중용하고 더 나아가 협박까지 하는 인물들이 나온다. “알았다. 말이 새 나가면 너와 나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도움 될 게 아무것도 없다. 입단속 잘하고...” (성 국장). “그런데 회사에 갑자기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서 그 친구(김원용) 사정이 조금 난처하게 됐어. 내 말 무슨 의미인지 알지?” (이형우). 이들은 한 사람의 죽음보다 자신과 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그리고 대혁의 입을 회유든, 강압이든 갖은 수단을 동원해 막는다. 침묵하지 않아 내 이익이 손해를 보면, 그 대가로 너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권력과 자본에 찌든 ‘괴물’의 모습이다. 윗 문단에서 언급한 문제들은 수연의 죽음을 둘러싼 표면적인 것이었으나,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씌어 들어가기에 더욱 치명적이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저자는 이들도 본래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한다. 성 국장은 입사 초기엔 성실한 기자였고, 지금은 회사 내에서 악명이 높으나 가정에서는 ‘딸 바보’로 유명하다. 대혁이 존경하는 선배 기자인 병희는 “악은 이렇게 평범한 데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한다.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이론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수백만의 유대인을 학살한 범죄자 아이히만도 집에서는 따뜻한 아버지였다는 것이다. 결국, 양심에 따라 사유하지 않을 때, 평범한 인간도 얼마든지 괴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대혁이 계속 침묵을 유지했다면 국장이나 오너 같은 삶을 살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을 말하며 사유하지 않으면 누구든 악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혁이 수연에 관한 왜곡된 정보를 흘리기 위해 누른 카카오톡 ‘전송 버튼’은 처음으로 침묵에 ‘적극적’으로 동조했음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던 ‘소극적’인 침묵이었다. 소설이 가장 심각한 국면에 치달은 장면이다. 어찌다가 대혁은 수연을 배신하는 행위까지 나아가게 된 걸까. 이는 ‘전송 버튼’이라는 간소성에 있다. 사람은 어떤 부당한 일을 지시받을 때, 그 방식이 간단하고 쉬울수록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눈 딱 감고 ‘전송 버튼’만 누르면 아무 일 없이 흘러갈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대혁 역시 같은 이유였다. 게다가 그 부당한 일에 약간의 진실이 담겨있고, 윗선의 압력과 이후 얻게 될 보상까지 결합해 있다면 웬만한 사람은 거부하기 힘들다. 침묵이 우리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이유다.

우리도 ‘영웅’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대혁은 어떻게 침묵이 주는 дискомфорт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대혁은

국장과는 달리 양심이 살아있는 인물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연에 대한 죄책감, 아내와 희철에 대한 미안함이 커졌을 것이다. 그러나 죄책감만으로는 침묵을 떨쳐내기 어렵다. 좀 더 결정적인 계기가 대혁에게 필요했다.

대혁은 선배 병희의 집에서 그룹 <넥스트>의 네 번째 정규 앨범 수록곡인 ‘Hero’를 되새긴다. 신해철은 대혁이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가수였다. ‘Hero’는 이런 가사를 담고 있다.

“이제는 나도 어른이 되어 그들(정의로운 영웅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이 내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끔씩 기억하려고 해”, “무릎을 꿇느니 죽음을 택하던 그들, 언제나 당신 마음 깊은 곳에 그 영웅들이 잠들어 있어요”.

만화 속 정의로운 영웅들을 흠모했던 어린 시절의 나와 달리, 어른이 된 지금은 무기력하지만 마음 한 곳에 여전히 영웅이 존재한다는, 용기를 주는 노래이다. 이는 주인공 대혁이 처한 상황과 일치했다. 소설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으나 대혁이 ‘침묵’을 깨고 ‘정의’를 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 신해철은 비판적이고 철학적인 메시지를 자주 노래에 담았다 / 출처: 위키미디어

집으로 돌아가 잠이 든 대혁의 꿈에서 신해철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다. “영웅이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웅이에요” 얼마 후 대혁은 갑작스럽게 아내로부터 임신 소식을 듣게 된다. 그리곤 정신이 번쩍 들 듯, 곧바로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로 한다. 내 자식을 포함한 다음 세대에 도저히 이 지옥을 물려줄 순 없다는 충동이였다. ‘타인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평범하고 무기력한 ‘어른’이었던 대혁이 신해철이 말한 ‘영웅’이 된 순간이었다.

넥스트의 노래 ‘Hero’는 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현실의 거대한 문제 앞에 무기력한 인간이지만, 조금이라도 침묵을 깰 수 있다면, 이를 통해 누군가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누구든지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침묵을 깨고 탈출한 대혁은 진정한 삶을 찾아 떠나면서 나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듯하다. 저자는 대혁이 사건을 폭로하고 회사를 나오는 장면을 ‘매화 향기를 맡으며 떠나는 것’에 비유하며 아름다운 ‘정화’의 과정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소설과 달리 실제 현실에서 침묵을 깨는 게 가능할지는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 대혁이 회사를 나와 국토종주에 뛰어든 것은 스스로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내부고발자가 여전히 조직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에필로그를 보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오너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여전히



침묵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는 언론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땡땡거리고 살고 있다. 말단 꼬리인 국장만 사표를 내고 사라졌다. 현실을 사는 우리가 더욱 씁쓸함을 느끼게 되는 대목이다. 침묵을 깬다 한들 그것이 유의미한 변화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있을까? 확실한 보장도 없는 도박에 내 전부를 걸어도 되는 것일까?

소설을 읽는 내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교차하며 복잡한 마음이 든다. 그러나 현실이 이 모양이어도, 이상을 꿈꾸는 사람이 많아야 세상이 더 좋아진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가 소설의 배경을 ‘언론사’로 설정한 이유를 생각해보게 된다. 침묵하지 말아야 할 일에 침묵했을 때, 사회를 가장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언론’이다. 언론도 하나의 기업으로서 현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부딪힌다. 그러나 언론은 다른 조직과 같아서 안 된다. ‘정의’라는 이상을 위해 침묵을 깨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언론이 이상을 실현하려 노력할 때, 세상은 조금이라도 나아진다. 저

자는 기자로서 이런 생각을 하며 책을 쓰지 않았을까.

<침묵주의보>는 ‘영웅’이 되고 싶었으나 현실에 부딪혀 그러지 못한 우리에게 답답한 위로를 건넨다. 동시에 타인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웅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격려한다.

무조건 침묵하지 말라 강요하지 않는다.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조금은 용기가 생길 것 같다. 